

본문: 빌립보서 2 장 6-11 절

제목: 자기비움과 하나님 나라

1.

최근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In the name of God)"라는 다큐멘터리가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에 있었던 굵직한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JMS의 정명석, 오대양의 박순자,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등을 보도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정명석, 박순자, 이재록 같은 이들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헌금과 재산 심지어 여신도들의 인생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집단였기 보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이익집단였죠. 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큰 요인은 잘못된 구원관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특징은 자신이 구원을 전매특허(monopoly) 받은 것처럼 달콤하게 얘기했죠. '나만 믿으면 천국행은 보장된다. 나에게 너의 재산을 다 헌납하면 너는 천국 바로 갈 수 있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거짓말에 사람들이 넘어가더라는 거죠.

한국의 기성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사모했고 개인구원에 큰 관심이 있어왔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들이 자신의 천국행 티켓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목사가 어느 정도 도덕적인 흠이 있더라도 그를 감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 아들이 교회돈을 횡령하고 목사가 여신도와 스캔들이 좀 있더라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눈감아 주기도 했죠. 목회자들은 이런 것을 이용해 자신들이 구원의 전매특권을 받은 것처럼 행세해 왔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성전 시스템이 죄사함과 구원은 성전에서만 이뤄진다고 말했던 대제사장들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나 손 마른 환자 같은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했다.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가둬두었던 죄사함과 구원을 풀어 해쳐 놓으신 겁니다. 전매란 담배나 인삼과 같은 작물에만 쓰일 법한 말인데 구원에 쓰이는 것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직자들은 이런 구원의 전매권을 가진 특수한 직업군들로서 그들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경향을 띄었죠. 물론 모든 목사님들을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너무나 순수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구원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일반 성도들은 아직도 구원을 이 세상에서의 탈출로 이해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 안드로메다 어디쯤에 있을 피안의 세계로 탈출해 가는 것으로 구원을 이해하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며 언젠가는 가게 될 막연한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이단 사이비는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것이구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후의 세계를 묘사하는 표현들은 1 퍼센트도 안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구원이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것이고 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 장 15 절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까이에 왔다고(헬라어-엥기조, come near)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복음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편만해지는 것이 구원의 상태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화해하여 화목하고 탐욕과 죄악이 사라지는 참 살롬의 상태를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하늘 나라의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구원관을 갖게 한 오해는 '이신칭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신칭의'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믿음'의 주체를 나 자신으로 이해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의로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해 주신 그분의 의로우심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서 나온 순종에 우리가 기대서 우리 삶에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일회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영접기도 한다고 천국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일 뿐이지 이후에는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2.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구원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 오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세력들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오는 시민권의 변화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 놓으신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덧입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통치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 장 12 절은 사단의 통치자들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rulers, authorities, the power of this dark world)”**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principalities, powers, the rulers of the darkness of this world)”**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봉건질서에서 따온 용어들입니다. 봉건사회란 왕 밑에 영주가 자치적으로 자신의 땅을 통치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영주(feudal lord) 가 다스리는 땅을 영지(feudal tenure)라고 말하기도 하고, 공국(dukedom, duchy)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공국을 다스리는 사람을 공작(duke)이라 불렀죠.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로 사단의 통치를 이해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봉건체제의 연장으로 이해했던 세계관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한 세계관에 의해 유다서 6 절에 어둠의 통치자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매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이 말씀은 외경인 에녹서의 내용을 기초로 한 겁니다. 하나님은 미가엘(Michael), 라파엘(Rafael), 루시퍼(Lucifer)에게 하나님 나라를 각각 3분의 1 씩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이 세 천사들의 봉건영토에 나눠진 것이었죠. 그런데 루시퍼가 이끄는 천사들의 3분의 1 이 반역을 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됩니다. 루시퍼와 함께 반역한 천사들을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라고 일컫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영토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세력들을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매우 조직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무리들을 제압하기

위함입니다. 사탄(Satan), 마귀(Devil), 귀신(Ghost), 정사, 권세 이런 표현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실체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만 보더라도 사탄과 귀신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사탄에서 시험을 당하시죠. 마가복음 1 장 34 절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다고 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눅 4:34).”** 예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쫓아내기만 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전멸할 운명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하여 가는 과정이 바로 천국의 건설이자 확장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하는 치열한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3.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어갈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위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원리를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낮아짐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공유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극히 낮아지신 것이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것이었죠.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신 자기 비움의 극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 장 8 절과 9 절은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을 높이겠다는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많이 낮춘 사람을 높이는 원리입니다. 어두움의 나라, 즉 사탄의 나라는 이와 반대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확장해가려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한 없이 낮추시고 한 없이 비우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혀 버리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면서 예수님을 높이셨죠. 예수님 스스로 높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단의 방식은 self exaltation 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방식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려 했습니다. 나아가 아담과 하와는 신적인 불멸성을 가지려고 선을 넘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발전된 방식이 창세기 11 장의 바벨탑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흠어지지 않게 하자(4 절).”** 스스로 높아지는 방식과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는 방식으로 확장하여 나가자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는 반대입니다. 이 바벨탑의 대안으로 선택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 줄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정하는 것까지 스스로 결정하기를 포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자신의 몸에서 낳은 자신의 아들까지 드려야 하는 극단의 순종까지 보여야 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식은 사단의 나라와 비교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사람을 높이는 이 원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시는 것이구요.

본문 10-11 절을 보십시오. **“그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10 절)”** 하늘, 땅 위, 땅 아래의 세 가지 영역이 나오죠. 이 세 영역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길게 설명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는 영역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쥐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단의 나라가 결국에 멸망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 장 15 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땅 아래 있는 사람들이란 이미 죽은 자들과 그 영혼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전서 3 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저 지하 세계(Sheol, Hades)에 다녀오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서는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장사된 후 스올에 내려가신 내용입니다. 땅 아래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주님은 ‘퀴리오스’인데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자가 되신다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어주었던 영토를 회복하여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4.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방식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박고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입니다. 자기를 낮춤으로, 겸손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헛된 욕망의 바벨탑을 부수어 가면서,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확보해야 하는 것은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중력의 위치에너지는 MgH 다’는 공식을 물리 시간에 죽어라 외웠었죠. (질량*중력가속도*높이) 질량이 높고, 높이가 높을 수록 에너지는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로 높은 위치에너지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 절은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골 3:1-2).**” 위에 있는 것들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의 통치가 이 세상에 확장되는 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제압하는 방식은 높은 영적인 위치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제압하는 방식은 순종의 아들이신 예수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방식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여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것처럼 높은 영적 에너지를 가져야 사단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거룩의 고도(Altitude)를 높여야 하고, 사랑의 질량을 높여야 하고, 의로움의 질량과 순도를 높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고도를 확보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삶은 개판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이 기도한다고 사단이 거들떠 보거나 할까요? 더욱 거룩한 삶을 사모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고 여러분의 말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제 말에 힘이 생기려면 저의 삶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의미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과 온 누리에 퍼져가는 것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엿 것을 찾으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통치 능력을 확장하는 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에 파묻혀 있다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 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 우리는 분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싸움의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도(high degree)의 순종, 순도 높은 사랑, 극단적인 의로움,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확보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4.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형이상학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기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한 사람 구원해서 저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그분의 빅 픽처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세상 풍조에 맞서서 싸워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엿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을 생각하며 더욱 높은 영적인 고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더욱 거룩하게 살고, 더욱 사랑하며 살고, 더욱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고도를 확보하는 길은 더욱 낮아지는 길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위엿 것을 찾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 삶을 반성하는 기간입니다. 어둠의 자녀들처럼 나의 욕망을 좇아 살아온 삶을 반성하며 하나님의 크신 비전에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바로 잡는 시간입니다.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겸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계시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